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오늘, 2018 년 3 월 12 일, 8 시 20 분
알바노 라지알레(로마)의 선한목자의 어머니 마리아 공동체에서
안나 마리아 로렌자 도메니첼리 수녀님 선종
ANNA MARIA SR LORENZA DOMENICHELLI
81 세, 54 년 간 수도생활

“저의 울음을 춤으로 바꾸셨으니, 저의 하느님, 당신의 은총을 영원히 노래하리라”(시 29).
영원한 삶으로 우리의 안나 마리아 수녀님을 부르신 성부께 시편저자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긴
병고의 시간이 지난 후 수녀님은 자신의 고통이 춤으로 바뀌고 하느님의 자비에 둘러싸여 주님의
끝없는 기쁨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안나 마리아 수녀님은 1937 년 3 월 15 일에 태어나 같은 해 3 월 21 일에 안눈지앗따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2 명의 형제가 있으며,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알바노
라지알레(로마)로 1961 년 8 월 30 일에 입회했으며, 거기서 초기 양성기를 보냈습니다. 1962 년
6 월 22 일에 수도복 착복을 청원하며, 미래의 양성의 걸음에 대해 “주님의 은총에 대한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1962 년 9 월 2 일에 수련기를 시작했고, 이 단계를 거친 후, 첫 서원을 청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저의 성소와 수도회에 대해 충만하게 기뻐합니다”. 1963 년 9 월 3 일에
로렌자라는 수도명으로 첫서원을 했고 그 후에도 알바노에 머물며 종신서원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기에 석사학위와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모원에 머물며 큰 열성과 헌신으로 문지기
소임을 수행했습니다. 창립자께서 도착 했을 때 신속하게 환대하고, 모든 공동체가 창립자
주변으로 “모이도록 알리기 위해 “ 종을 신속하게 쳐서 알렸습니다.

로렌자 수녀는 초기 양성기를 마치며 종신서원을 청하며 다음과 같이 하느님과 수도회에
대한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성소에 참으로 합당치 않음을 느끼지만, 성소에 맞는 은총을 주실
것을 알기에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충분함을 압니다. 기쁘게 아무것도 자신을 위해 남기지 않고

선한 목자에게 저를 봉헌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장상들의 도움으로 하느님이 저를 부르신 성덕에 도달할 것을 확신합니다. 1968년 9월 3일, 알바노 라지알레에서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로렌자 수녀님은 수도회를 사랑하며, 겸손하고 조용하며, 실용적 지성을 가졌으며, 기도에 충실하고, 가난과 정리를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종신서원 후 페루자의 성 에지디오 본당으로 파견되어 얼마 머물지 못했지만, 본당 공동체에서 열렬히 살아서 이동소식을 듣고 가톨릭 액션 지도자와 본당의 청년들이 수녀님을 돌아오게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가톨릭 액션의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크게 유감스럽게도 사랑하는 “로렌자 수녀님”의 이동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토록 사랑스럽고 상냥하신 수녀님이 우리 마을을 떠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로렌자 수녀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겸손하시고 단순하며, 진심으로 믿음을 사시며 전 본당 신자들의 마음을 얻으셨던 사랑스런 수녀님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가톨릭 액션 단체의 청년들도 주님을 찾는 신앙의 여정 안에서 “가장 내밀한” 것까지도 말할 수 있을 만큼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었던 로렌자 수녀님이 떠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로렌자 수녀님은 1970년부터 1975년까지, 체사노 마데르노에서 유치원에 근무하게 될 때까지 알바노에 계셨으며, 그 후에는 빌림펜타에 파견되어 같은 사도직을 수행하셨습니다. 1979년에 다시 알바노 라지알레로 돌아와 문지기 소임을 다시 맡으셨습니다. 1982년에 다시 산 에지디오 성당에 파견되어, 여성사목에 헌신했으며, 1992년에 아벨리노-보르고 페로비아에서 유치원 사도직과 가정사목에 힘썼는데, 자전거를 이용하여 자주 방문을 하며 어렵고 병들고 슬픔에 찬 사람들과 특별히 가까이 했습니다.

2001년에 알바노로 돌아와 안식년을 지냈고 2002년에는 라보라떼에서 여러가지 일을 하며 특히 가정사목에 힘썼습니다. 2008년에 다시 알바노로 돌아와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2009년에 허약한 건강상태로 인해서 알바노에서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았으며, 공동체는 사랑과 큰 헌신으로 긴 세월동안 병 치료를 도왔습니다. 알바노 라지알레 공동체와 거주하는 모든 수녀님들의 연로하시고 병든 이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로렌자 수녀님을 성부의 자비에 맡겨드리며, 창립 80주년을 지내는 수도회 여정을 위해서, 특별히 수도회를 새롭게 하는 우리의 여정이, 교회 안에서 미래에 우리의 현존을 위한 친교와 희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전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아민따 사르미엔토 푸엔떼스 수녀
총장

로마, 2018년 3월 12일
성 루이지 오리오네 기념일